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32호

2025.3



ISSN 3059-0280

이채연_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3

스물여덟번째 원고

X_ 그 곳에 가고싶다 : 아비장(Abijan)

열번째 원고

김희진_ 갓챠

열아홉번째 원고

오종원_ 피그헤드랩은 올해 조금 쉬어갑니다

서른번째 원고

한량윤씨_ 져태

첫번째 원고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3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2024년 12월호와 2025년 2월호의 종이 사러 일본 갔다 온 썰1,2에 이은 세번째 이야기.

남편과 아들, 나 이렇게 9월 22일에서 9월 25일 3박4일로 일본여행을 다녀왔다.
얼핏 단란한 가족여행처럼 보이지만, 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오로지 아들(중1, 13세)을 위한 여행임을 알 수 있다. 식사를 제외한 전 일정이 아들의 취미인 종이접기와 관련된 것이다. 아들이 가고 싶고, 좋아하는 곳으로 일정이 꽉 차버린 여행의 세번째 이야기.

3일차: 9/24(화)

스가모 와시, 세카이도
도쿄의 중심가에서 살짝 벗어난 지역의 전통시장 부근에 있는 와시(일본 전통 종이) 가게이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곳에는 아들과 남편이 가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 다른 곳에 갔다. 스가모 와시와 세카이도는 이 곳을 다녀온 남편과 아들이 알려 준 것 위주로 기록을 남긴다.
스가모 와시는 전날 간 오즈 와시에 비해 작고, 디스플레이가 고전적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작지만 알찬 느낌이다. 숨은 고수 느낌 이랄까? 이 작은 가게도 종이접기를

하는 분들이 일부러 찾아서 오는 곳이라고 한다. 이 곳에는 다양한 색과 무늬로 염색된 와시가 많다. 보통 와시는 대략 70x90cm 사이즈로 판매하는데 여기는 A3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염색된 와시가 있다. 사이즈가 작아 졌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종이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래도 수제 종이라서 문구점에서 파는 한지보다는 비싼 편이다. 아들은 어제 오즈 와시에서 가격이 좀 있는 종이를 구입했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종이를 고르고 골랐다.
일단은 종이 접기 명소에 가기 위해 비행기 타고 멀리 나왔으니까 한국에서 보다는 후한 소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형편 봐 가면서 사야지 예쁘다고 막 구입 할 수는 없다. 종이 전문 상점들을 다니면서, 나도 종이를 사고 싶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았지만 탐나는 종이가 많았다. 아들이 사는데 나까지 사면 지출이 커져 마음이 쓰릴 것 같기도 하고, 그간 사놓고 안 쓴 재료들을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막상 예쁜 종이를 사오면 작업의욕이 솟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종이 자체로도 충분히 멋진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서 종이에게 미안해 지기도 한다. 적절한 소비… 어렵다.

여기도 오즈와시 비슷한 종이가게 이다. 와시는 일본 전통 종이를 뜻 하는 것 같다.
-아들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중에서-

세카이도는 신주쿠에 있는 대형 문구점으로 문구류와 각종 미술재료를 판매한다. 전날 갔던 이토야가 고급 문구류와 선물가게 느낌이라면, 이곳은 본격적으로 문구와 미술재료를 다루는 것 같다. 조금 더 실용적인 느낌이다. 미술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유명한 곳으로, 특히 한국에는 없는 동양화 재료가 있어서 동양화 재료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재료를 구입 하기 위해 찾아 오는 곳이라고 들었다. 이곳에 아들은 '모미가미'라는 종이를 사러 왔다. 미술에서 모미가미라는 것은 한지의 질긴 물성을 이용해 구겨서 안료를 탈락시키는 기법이다. 모미가미는 즉 구김지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관심이 없어서



사진6_스가모 와시에서 종이를 고르고 있는 아들. 근처 전통시장에 꽤 볼거리가 많다. 그 일대 상점가를 일명 ‘‘노인들의 위한 거리’ 스가모 거리라고 한다.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인사동 한지 가게에서 수제 구김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다음에 우리나라 한지 가게에 가면 찾아봐야겠다. 매력적인 재료인 것 같다.
세카이도를 찾아 갈 때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和紙ラボ TOKYO(washi labo Tokyo) 라는 곳에 갔었다. 도착해보니 찾는 곳이 아닌 걸 알게 되었고 아들의 동공에는 쿵! 선명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실망한 아들을 달래고 달래면서 다시 검색해서 세카이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도착한 세카이도에서 '모미가미'를 찾을 수 없어서 또 당황하고 아들의 눈에는 2차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곳은 매대에서 종이를 골라 카운터로 가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종이구입 의사를 밝히면 카탈로그를 주는데 그걸 보고 종이를 주문하면 직원이 가져다 준다. 종이가 예민한 물건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다. 미술전문화방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시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일반 사무직인 남편은 이런 시스템을 처음 경험해서 엄청 당황했다고 한다. 특히 남편은 한국에서 이곳까지 모미가미를 사러 왔는데, 못 사고 돌아가면 아들이 많이 아쉬워 하고 실망 할 까봐 걱정 했다고 한다. 이런 아들 바라기!

Origami Kaikan(박물관)
종이접기 작품전시장과 재료를 판매하는 곳이다. 도심의 빌딩에 위치해 있고 작품전도 열리고 있어서 종이접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곳에는 유명 종이접기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수업도 있는 것 같았다. 마침 유명한 종이접기 선생님인 것 같은 어느 할아버지 주위로 대체로 나이가 있으신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뭔가 유쾌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무얼 하고 계시나 봤더니 작고 귀여운 종이 접기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었다. 노년의 취미로 종이접기는 간단하고 건전해서 좋은 것 같다. 뇌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도 되고 아무튼 괜찮은 취미 같다. 가끔씩 아들이 종이 접기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있는데 내 수준에는 너무 어려운 고

난위도의 종이접기를 가져 온다. 같이 하고 있으면 뇌가 쥐가 나는 느낌이 든다. 피하고 싶다. 그래서 바쁘다고 하고 안 할 때가 많았다.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하고 귀여운 종이접기를 하면 좋겠는데…참

이 박물관의 종이접기 재료 샵에는 우끼요에(일본 풍속화)나 일본 전통 그림이 인쇄된 종이가 많았다. 나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전통 느낌의 종이에 관심을 보였고 구입하는 사람도 많았다. 상점의 물건들이 그림이 프린트된 종이나 종이공예 키트 위주라, 무늬 없는 사각 종이를 원하는 아들은 설렁설렁 보기만 했다.

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이는 없었지만, 이 박물관에서는 수제 종이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건물 제일 위층에 작업장이 공개 되어 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종이 장인 같은 분이 색종이를 만들고 계셨다. 평평한 작업대 위에 큰 종이를 올려 놓는다. 종이 위에 넙적하고 큰 붓으로 염료를 칠한다. 그 다음 긴 막대로 종이를 걷어 올려 건조대에 건다. 다 마르면 재단한다. 단면에만 염료가 칠해져 있다. 반대쪽 면에는 색이 배어 나오지 않았다. 얇은 종이에 염료를 듬뿍 바른 것 같은데…… 신기하다. 뒷면에 새어 나오지 않게 한쪽면에만 염료를 빠르고 균일하게 칠하는 것이 기술이겠지 싶었다. 색종이는 다 공장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수제로 색종이 만드는 걸 보니, 색종이 한 장, 한 장 제대로 잘 사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옆에서 색종이 만드는 것을 같이 본 서양인 외모의 사람이 나에게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스고이 어쩌고 솰라솰라…….라고 말했다. 일어는 물론 영어도 못하는 내가 잘 알아 들을 수 없었지만, 대충 추측해보면 종이가 아주 고져스(gorgeous)하다는 뜻 같았다. 뒤이어 내게 질문을 했는데, 나는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아임 포리너. 코리안' '아이 돈 노' 라고 대답했다. 내 발음이 토종 코리안이라 제대로 알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다. 조금 뒤 수제 종이 작업한 분이 오셔서 서양인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고, 작업실에 있는 여러가지 종이 조형물과 작업실에 있는 다른 종이들도 설명해 주셨다. 나를 비롯 나머지 구경꾼들은 열심히 호응을 했다. 설명을 듣고 있으니 종이 작업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다. 이 열정은 작업을 하고 있는 나에게 자극이 되었다. 작업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에서 종이접기와 종이, 책, 팬시 용품들을 접하면서, 종이 작업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은 작업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작가는 물론이고 재료, 업체 등등의 합이 맞아야 한다. 일본은 이런 환경이 어느정도는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다. 겉핥기로만 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다.
나의 종이 작업들을 돌아봤다. 종이에 그림 그리며 실패한 일, 재작년 책 처음으로 책을 만들면서 몰라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거기다 결과물도 마음에 들지 않아 상심했던 일. 그런 흑역사들이 떠올랐다. 그래도 이 흑역사를 쌓고 쌓아 완전한 검정, 반질반질 윤이 나는 칠흑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확신 할 수는 없지만 뭐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패는 최소로 하고 싶지만, 이미 비축해둔 흑역사는 어떡하든 활용 하고 싶다.

종이접기 종이공예 관련 박물관이다. 종이를 염색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종이를 염색할 때 장인의 품위가 느껴졌다.
-아들의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중에서-

거의 모든 일정을 온 가족이 다 같이 움직였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다는 건 이기적인가 싶기도 했고, 아들을 위한 여행이라는 목적에 맞게 일정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큰맘 먹고 큰돈 써서 일본에 왔는데, 내 취향대로 즐기지 못해 약간 아쉬움이 있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내 취향대로 여행에 강한 의지가 있지는 않았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였다.
다행히 고맙게도 남편의 배려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 시간상 멀리는 못 가고 숙소 근



사진7_ Origami Kaikan 작업실에서 종이를 염색해 색종이로 만드는 모습

처 우에노 공원 안 도쿄도 미술관과 국립서양미술관에 갔다. 그런데… 휴관이었다. 화요일인데 휴관이라니 이상해서 찾아보니, 일본에서는 공휴일 다음날은 쉬는 곳이 많았다. 보통 월요일이 휴관일이지만, 어제 월요일이 공휴일이라 영업하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 쉬는 날이 된 것이었다. 구글 지도에는 영업 중이라고 나와서 믿고 왔는데….휴관이라니! 구글을 믿었던 내 잘못이다. 다음엔 적당히 믿어야지! 닫혀진 우에노 공원 문 앞에 왠지 나랑 같은 처지일 것 같은 외국인들이 있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이 귀한시간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숙소 근처라 가깝고 젊은 예술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동경예대에 갔다. 내심 특이하고 톡톡 튀는 요즘 미술, MZ 스타일 그런 걸 기대했는데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였다. 대학 안에 미술관이 있는데 열려 있었고 전시도 진행 중 이였다. 이거라도 하나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전시를 보는데 한국작가의 작품이 있었다. 그것도 평소 관심 있었고, 건너 아는 작가님의 작품이었다. 무척 반가웠다. 직접 아는 작가도 아닌데 전시 사진 팡팡 찍어서 작가님의 지인인 친구에게 보냈다. 좀 오지랖인가 싶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이렇게 하고 싶었다. 도쿄로 여행 와서 한국사람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우연히 아는 한국 작가의 작품을 보는 건 드물고 신기한 경험인 것 같다.

미술관 건물 앞에는 동상이 있다. 근육이 잘 자리 잡혀 있는 젊은 남자다. 서양의 고전적인 미남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청동으로 만들어 진 것 같았다. 고개를 들고 몸을 내밀고 있는 포즈가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가 “예술은 자뻑이야”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누가 뭐래도 내 껄 보여주는 게 작업이지. 기운 내자!’ ‘그치? 채연아?’ 나는 나 자신과 그(동상)와 대화하며 산책을 했다.



그림1_ 동경예대에서 본 동상,
2024, 디지털 페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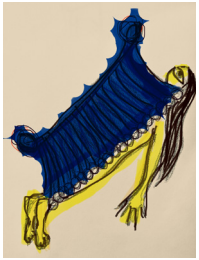
9/25(수)

13:05 나리타 -> 15:30 청주공항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짧지만 알찬 일정을 보냈다며 자체평가를 했다. 다음에 올 때는 아들이 종이접기 작품전 같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오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아들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철벽을 친다. 겸손한 건지, 현실적인 건지, 꿈이 작은 건지 모르겠다.

2024년 가을에 여행을 다녀왔고, 이 글을 쓰고 있는 2025년 초, 아들의 관심사는 여느 질풍노도의 사춘기 아이들처럼 다양하고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 여전히 종이접기를 좋아하지만, 여행 때보다는 애정이 식은 것 같다. 여행을 다녀 온 후 아들의 관심사는 코딩으로 게임 만들기(게임은 안 하는데 만들려고 한다)였다가 지금은 체스다. 아들이 같이 체스를 하자고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내 머리는 체스를 받아 들일 만큼 스마트 하지 않다. 거기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체스를 할 체력이 남아 있지 않다. 가만히 앉아서 체스 두는데 뭔 체력이 필요하냐고 하겠지만 두뇌를 쓰는 것도 체력이다. 나의 저질스런 몸이 원망스럽다. 아들의 관심사가 나와는 달라 힘들기도 하지만, 달라서 좋다. 나는 내 아들이 논리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용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와는 아주 다르게!



그림2_마왕, 2024, 디지털 페인팅. 아들이 만든 게임에 들어 간 그림. 엄마이자 그림 작가인 나에게 그림을 주문했다. 게임 퀘스트 달성하면 나오는 이미지다. 파이널, 중요한 장이다. 나는 간단한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캐릭터를 그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장면이라 진지해 보이고 싶다는 클라이언트인 아들의 요청이 있었다. 중1 아이, 생각보다 취향이 확고하다. 엄마의 능력이 도움 되어 뿌듯했다. 핀터레스트 이미지 모작



그 곳에 가고싶다 : 아비장(Abijan)

X
작가 & 전시기획자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이 도시의 이름은 익숙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아. 특히 한국 사람에게 말이야. 2005년 내가 처음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들었을 때 나도 그랬어. 서울에 산지 6개월 후 헤어 스타일을 레게 파마로 하고 서아프리카 코트 디브와르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야 이 도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

I

2005년 내가 스물하고도 세 살 더 먹고 난 어느 날 아침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깼다. 당시 난 한창 이태원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놀고 있었다. 영등포구의 옥탑방은 정말 세가 쌌지만,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웠다. 그래서 이태원의 드림 고시텔에 이사했다. 강남에서 일하고 이태원에서 일하기에 그냥 이태원으로 이사를 했다.
[이 고시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당시 나는 이태원의 한 유명 프랑스 식당에 일하며 밤에는 이태원의 다양한 클럽의 음악과 진귀한 칵테일과 술을 알아가는 와중이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춤추는 걸 좋아해서 클럽 스테이지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춤췄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난 절대 취해서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난 당시 춤이

좋아서 술을 덜 마시고 춤만 추는 “쭉쟁이” 였다. 클럽 데이에 무료 음료 쿠폰만 쓰는 그런 못된 고객이었다. 뭐~ 댄싱 퀸이 되고 싶었다고 치자.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이지리아 출신의 아프리카 사장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아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는데 당시 아프리카 협회의 회장으로 일을 하며 이태원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멋진 중년 생활을 보내며 아름다운 중년의 한국 여자와 데이트 하는 신사였다. 단지 그가 한국어를 할 때면 이 모든 이미지가 사라져서 난 늘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했다.

전화 속에서 그는 나에게 “지금 어디야? 너 프랑스어 하지? 나 좀 도와줘!”라고 급하게 영어로 찾았다.
사실 난 그를 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친구는 하루만 데이트한 여자애인데 내가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된 프랑스 출신 한국 교포였다. 당시 그녀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지만 우리는 늘 “썸” 비슷한 관계였다.
우리 둘 다 젊고 새로운 문화를 겪고 싶었다. 그녀는 대단한 집의 딸이었고 그 당시 내가 유일하게 본 샤넬 신발을 신는 사람이었던 거 같다. 사실 내가 일하는 식당에는 고급 외국 브랜드를 입고 온 사람이 많았지만, 진정한 고급 브랜드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친구가 신었던 은으로 장식된 샤넬 신발이었었다. 고급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걸 알게 해줬다.

내가 잘 생긴 캐나다 남자 제쳐두고 그녀를 선택한 날, 저녁 시간에 우리는 어느 바에 갔고 거기서 터키 애들 두 명에게 부킹을 당해서 난 그녀에게 키스도 못했다. 이후 그녀는 늘 남자를 만날 때 가끔 나를 데려갔고 그녀가 북 아프리카로 가는 티켓을 알아보는 와중에 나도 같이 이 나이지리아 사장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난 그가 두 명의 건장한 아프리카 남자와 얘기하는 것을 봤다. 그들은 한국에 온 노동자로 아프리카에 가는 티켓을 알아보고 있었다. 내가 프랑스어로 얘기하며 상황은 정리되었고 우리는 오후를 같이 보내게 되었다. 내가 인사동에 가서 여러 한국 문화를 설명했을 때 이들은 나에게 내가 한국 사람 같지 않다고 놀라워했다. 자기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한국 사람의 무지와 차별, 적절하지 않은 배려는 나의 맘을 아프게 했다. 인사동에 여러 신기한 조각을 구경할 때 우리는 코끼리의 상아를 봤고 이 때 이 들은 나에게 왜 그들의 고국이 “코트 디 브와르(상아 해변)” 라고 불리는 지를 수 많은 코끼리로 설명해줬다. 난 그 때 내가 꿈에서 본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허리에 박힌 두 개의 상아와 내 얼굴의 멍과 구멍..
그 때 난 이미 내가 상아 해변에 가야하는 것이 운명인 것을 알았다.

II

비행기가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난 비디오 캠코더로 계속 사람들을 찍었다. 난 어느 흑인이 밥을 먹는 장면을 찍으면서, 서울에서 KTX를 탔을 때 내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할머니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샵에 들려서 루이보스(Rooibos) 티를 골랐다. 기본 맛과 레몬 맛을 골랐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루이보스가 당시 없었고 마테도 수입해서 들어오기가 힘들었다. 난 처음으로 남아공 화폐를 써보았다. 그리고 비행기 환승을 위해 남은 시간을 식당에서 모잠비크의 삶을 얘기하는 이탈리아 중년 아저씨와 보냈다. 마지막에 그는 나에게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모잠비크에 오면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다.

하지만 비행기가 나이지리아에 잠시 멈추고 백인의 승무원이 네델란드 혹은 독일어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험난한 분위기가 시작되는 걸 난 느꼈다.
코트디브와르의 아비장에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 가족이 나와서 나를 맞이했지만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먼저 가족은 호텔에 가고 싶은지 자기들의 집으로 가고 싶은지 물어봤다. 난 집도 괜찮다며 사양했고 선물을 사 왔으니 전달해주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내가 택시에 올라탔을 때 난 쿠테타와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서서히 느꼈다. 저녁 시간에 도착해서 어둠 컴컴한 밤하늘을 보며 택시에 몸을 싣고 두 코끼리가 코를 마주 대는 모양의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난 육감적으로 느꼈다. 여기서 나가는 길이 힘들거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를 나가면 많이 달려졌을 거라는 것을..

III

여행을 떠나기 한 달 전, 상아 해변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했다.
아프리카에 가서 예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커피광인 나에게 커피 농장은 어떨까? 코끼리를 직접 보면 어떨지…. 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주인은 나에게 7개의 카드를 골라보라고 했다. 그리고 카드의 패를 읽는도중 나에게 혹시 지금 가는 곳이 다른 곳을 가기 전 경유지인지 물었다. 난 거기가 내 목적지인데? 하지만 거기 갔다가 프랑스를 가게 돼도 상관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아무렇지 않게 상관없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그는 나머지 카드를 가리키며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거기에서 못 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카드를 섞으며 나에게 던진 말은 아마도 그곳을 경험하고 나면 많이 변해있을 거라는 것이다.

난 별로 개의치 않았다. 변하다니? 뭐가?
난 젊고 박진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잭 케루악이 쓴 '길 위에서(On the road)' 처럼 '딘 모리아러티 (Dean Moriarity)'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IV

옆집 흑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한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당뇨를 앓고 있었고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좀 더 인생을 피는 것이 목표였다. 절대로 흑인과 데이트를 하지 않으려 했고 당시 상아 해변에서 일하는 돈 많은 프랑스 남자나 다른 외국 남자와 만나려고 했다. 심지어 나를 한 프랑스 갑부 남자와 엮어서 저녁을 먹고 용돈을 받아가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시아 여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녀와 같이 '걸즈나잇'으로 술을 마시러 나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미군 남성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추파를 던지고 있었고 내가 자리로 오자 이를 숨기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프랑스에서 일하며 돈만 아내에게 부치는 기러기 부부였다. 그는 상아 해변을 떠나고 프랑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중산층이 있다는 것이 사회를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지 그녀의 아버지는 경험했을 것이다.

내가 살던 집에는 모르몬 교인인 아베(Abe) 족으로 이뤄진 가족이었다. 아비장에 있으면서 아베 족과 바울에(Baboule) 족을 경험했다. 아베 족은 약간 내성적이지만 바울레 족은 호탕하였다. 나를 초대해준 아베족 가족에 둘째 아들은 바울레 족 여성과 사귀고 별거를 한 과거가 있었다. 그는 그 여성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나중에 토로했다. 여기서는 결혼을 해도 이 전의 관계에서 아이가 이미 있는 일이 너무 흔하였다. 난 이런 삶

도 가능하다는 것과 다양한 방향으로 애정을 통한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리카에서는 임신은 신이 준 선물이고 살다가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라고 그랬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참치가 많이 잡혀서 늘 하녀는 나에게 참치와 쌀을 주메뉴로 요리해줬다. 처음에는 공기 적응이 안 돼서 여러 약을 먹으며 2일을 고생했다. 하지만 건강한 나이기에 주말을 지나고 다시 쌩쌩해졌다. 매일 침대 밑에 매일 일어나면 더워서 죽어있는 바퀴벌레를 보았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하녀가 20cm 정도 되는 지네를 통채로 굽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지네는 오렌지빛에 매우 화려한 색을 띠고 있었다. 난 맨 첨에 지네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진짜 지네였다!
그녀의 딸은 날 무척 따랐다. 어느 날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보며 달려 나와 나의 품에 안겼을 때 난 엄마가 되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날 다른 하녀의 아들이 엄마한테 꾸지람을 받고 정자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아이는 춤을 추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한다고 말을 했다. 난 교육을 꼭 다 받고 독립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했다. 하루는 하녀 중 한 명이 나에게 미용실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머리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뒤엉켜 자란다면서 나의 아시아 스타일의 머리를 부러워했다. 그래서 난 내 머리를 잘라서 주면 아프리카 여성의 풍만한 엉덩이를 가질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리고 다음 날 난 그녀에게 난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줬고 그녀는 내 머리카락으로는 미용이 안 된다며 웃었던 일이 있었다. 난 아프리카 남녀의 건강한 피부와 아름다운 몸매를 늘 부러워 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는 것 같다.

난 두 달 정도 체류하는 동안 다양한 인종을 아비장에서 만났다. 어느 날 인도사람이 길을 가다 나에게 말을 걸었고 아프리카에 출장 방문한다고 인도에 언제든지 오라며 나중에 메일을 보냈었다. 난 아비장에 인도사람이 와서 무역하는 것을 처음으로 봤었다. 그리고 이 더운

나라에서도 중국 식당이 존재했었다. 중국인이 땀을 흘리며 요리하는 데 정말 중국인은 세계 어디나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요리는 엄청 맛이 없었다. 하루는 길을 헤매는 데 레바논 남성이 나를 태워줬다. 그는 나중에 나를 스테이크 하우스에 초대했는 데 거기서 그의 삶을 얘기해줬다. 아프리카에와서 무역을 오랬동안 하며 돈을 많이 벌었지만 상아해변의 내전으로 인해서 일이 힘들어지며 대부분 자기를 떠났고 진정한 친구는 인생에서 찾기 힘들다는 조언을 줬다. 그리고 아비장에서는 여성이나 남성이 사회 부폐로 인해 자기 노력보다는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부폐는 나 자신의 발전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환경 탓으로 이끌며 스스로의 노력을 더디게 한다는 것을 나 또한 수 년후 깨달았다. 가족 중 한 분이 수학 교수여서 교육을 잘 받고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었고 고급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나중에 나를 위해 마키(Marquis)에 가서 생선스프를 사줬고 고급 바에 가서 춤을 추는 문화를 보여줬다. 아프리카 전통과 프랑스 문화가 섞인 재미있는 밤이었다.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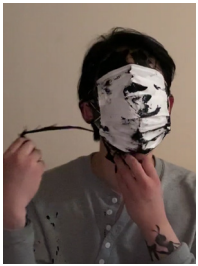
공항의 감옥은 아주 조그만했고 내가 여기서 자기 싫다고 하니 의자를 내줬다.
공항에서 난 뒷돈을 거부했다. 그들은 늘상 있는 일처럼 방송에 내 이름을 크게 얘기하면서 보딩게이트에서 내 짐을 꺼내와 내 앞에 던져버렸다. 사회의 정치, 경제가 부패하면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을 밀레니얼 세대인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울면서 내 짐을 주섬주섬 챙기는 데 날 보고 서있는 두 명의 아프리카 여자들이 꼬시다는 듯 날 쳐다고보 있었다. 금빛 장신구를 찬 그들은 돈이 많아보였다. 내가 핸드폰을 빌려달라니 싫다고 하며 떠났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감은 높지만 나라가 가난하고 식

민지를 오래 겪어 자존감은 낮은 것이다. 그 때 등장한 경찰서장, 2미터가 넘고 덩치가 그는 날 끌고와 자기 방에서 내 여권을 빼앗고 협박했다. 내가 당당하게 프랑스어로 말을 하며 영사관 인증을 받을 거라고 하니 갑자기 정신차리고 날 옆 방으로 데려갔다. “내일 아침에 영사관에 가고 그리고 여행사에 가서 표를 바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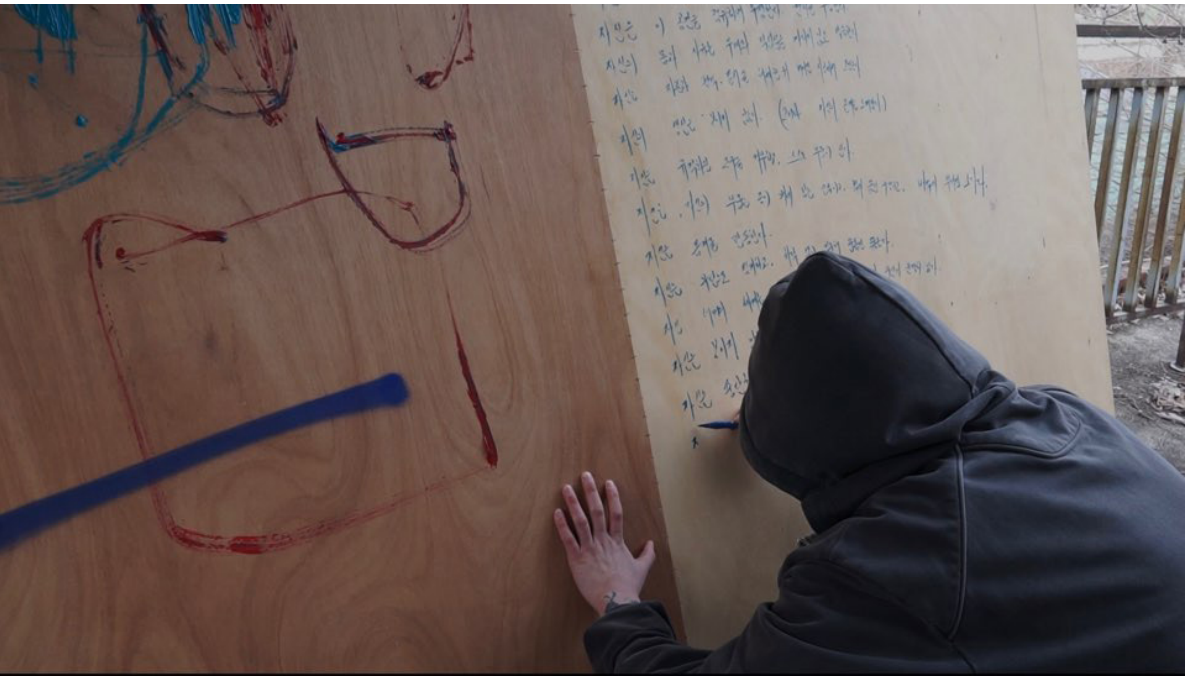
그 날밤 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간절하게 느꼈다.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강이 있는 데 그 안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매일 마리화나에 쩔어서 긴 대로에 차를 무시한체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생각이 났고 아무 일도 안하고 부패한 UN,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한다며 차별하는 한국 대사관과 기업인들 그리고 바오밥 나무에 오르며 유럽에 가고 싶어하는 아프리카 친구가 떠올랐다. 다음 날 난 영사가 내 앞에서 쌍욕하면서 아프리카 정부의 시스템과 부정부패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저녁에 외교관이 와서 소리를 치고서야 난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난 참으로 안도의 한 숨을 내셨다.

수 년이 지나 그 타로가 다시 생각이 났다. 그리고 늘 아비장을 그리워 하는 날 발견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 자아가 깨지며 비로소 세상과 화합할 때 난 더 성장한다. 다시 그 곳에 가고 싶은가?난 언제든지 다시 아비장에 가고싶다. 내가 순수함과 긍정성을 발견한 곳이기 때문이다.

갓챠



김 희 진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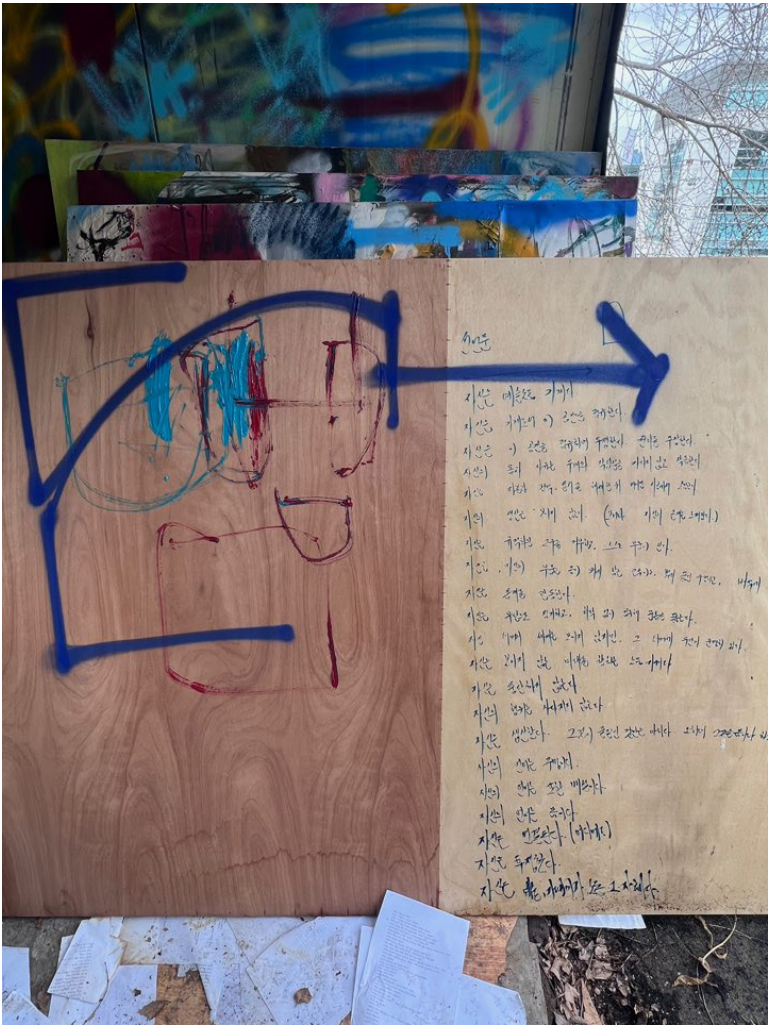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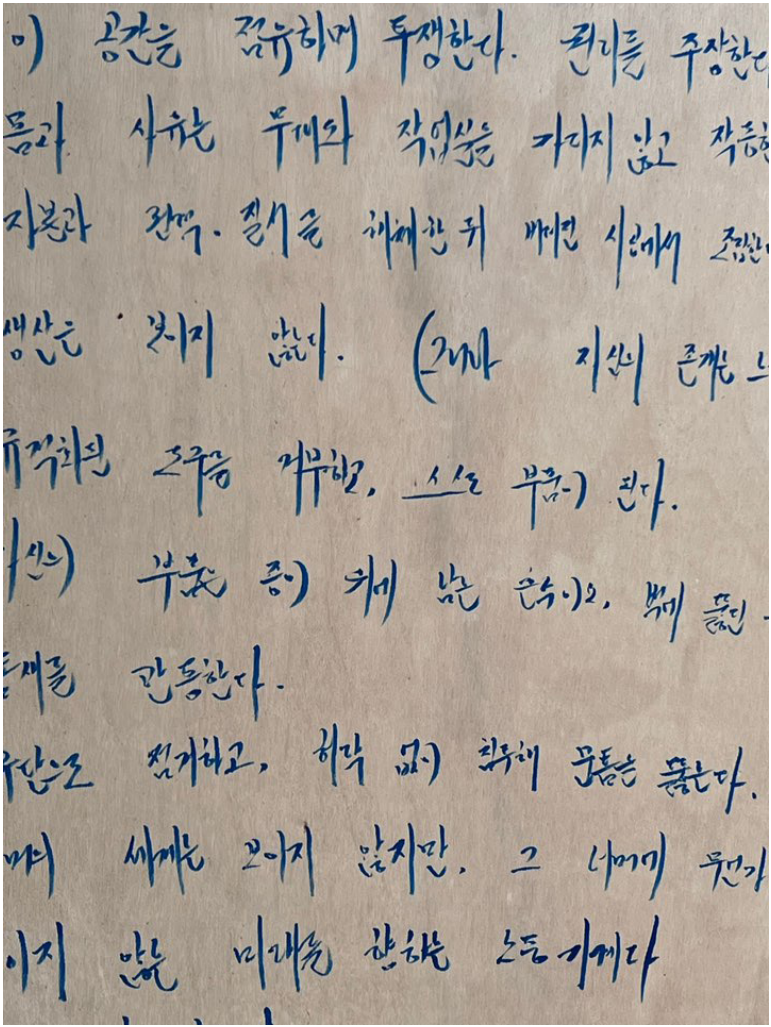
꿈이었다. 동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무작위로 공이 나오는 뽑기 앞을 서성이다 진리의 선과 같은 고결함을 1/5이나 1/6의 확률로 뽑을 수 있는 기계를 찾았다. 한 순간 이끌린 나는 서둘러 동전을 몇 개 찾는데, 급하게 가게가 철거되나? 불이 났나? 어쨌든 기계가 깨지고, 깨졌다기 보다는 그것의 뚜껑이 열리고 아이들이 마구 들어와 저마다 마음에 드는 기계 앞의 상품이나 기억, 조각 같은 것들을 훔쳐서 달아났다. 나를 구출하려는 어른들이 몇몇 들어와 얼른 나가셔야 한다고 외치는데, 내 앞에 뚜껑이 열린 기계를 나는 유심히 쳐다보았다. 근데 대부분의 공 안에는 아름다움(푸른색)이, 그 다음은 그곳에 선 이유가 되는 고결함(노란색) 그리고 몇몇의 숭고함과 같은 것들을 지나 극 소수의 추악함(분홍색)을 발견했는데 그 실물이 참으로 아름답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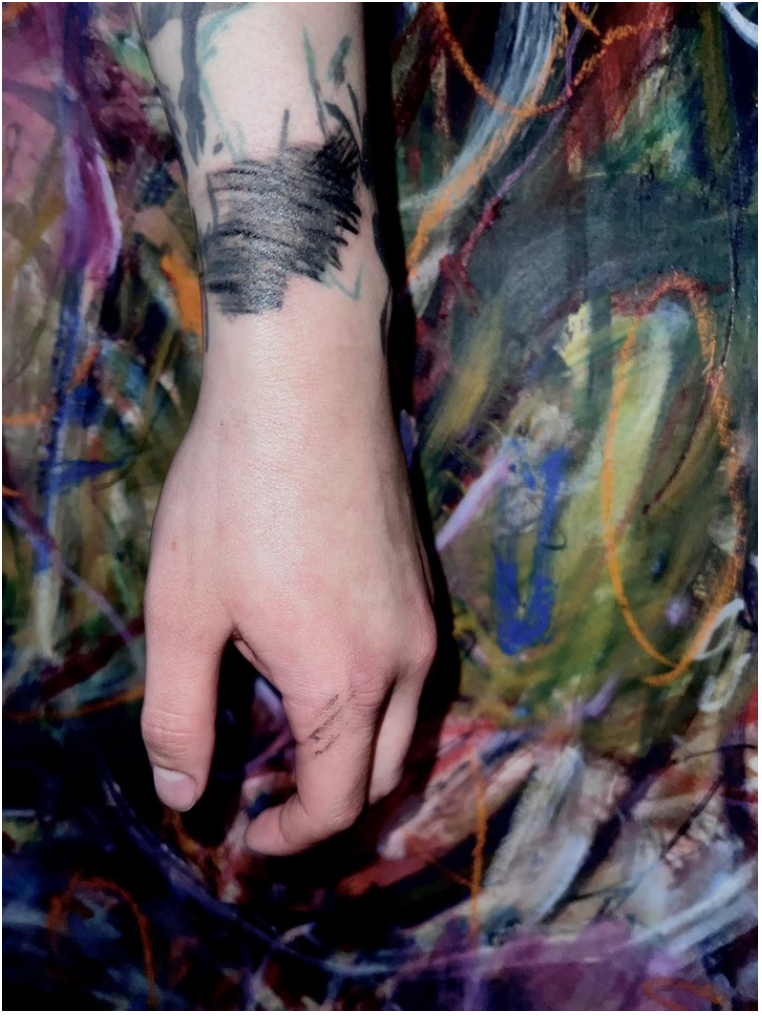
뚜껑이 열린 기계 앞에서도 나는 체면을 지키려 찾아낸 동전을 몇 개 기계에 넣어 손잡이를 돌리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결함이 나타날 것 같았다. 아래에 깔린 대부분이 그것이었고,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게 나올 차례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열린 뚜껑 사이로 손을 넣어 추악함을 꺼내고 뒷주머니에 챙겨 나를 구하러 온 어른들을 지나 도망쳤다. 그리고 잠에 잠시 깨었는데, 새벽 3시 13분.

악마와 천사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면, 대개 그것을 이야기의 서사적 장치로 소비하려 한다. 금지된 사랑, 파멸로 치닫는 열정, 신성모독적 낭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한 악마와 천사는 그런 기묘한 감정적 도식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경계를 가로지르고, 형이상학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변형시켰다.
악마가 천사의 목덜미를 잡고, 천사는 악마의 뿔을 쥐었다. 천사가 날개를 찢어 악마의 몸 속에 심었을 때,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전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모방이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고, 이미 시작한 그들의 신체는 서로를 따라잡느라 바빴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 부른다. 사랑은 일치를 꿈꾸면서 서로의 존

재를 망치는 충돌이다. 천사는 악마가 되고, 악마는 천사가 되고.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던 것 처럼.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닮아가다 결국 하나의 모호함으로 융합되는가, 아니면 끝없는 모순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공허 속으로 사라지는가?흔히 사랑이 구원이나 타락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단순한 추락의 과정이라고 본다. 서로의 신체와 언어를 찢고, 조각을 나눠 갖고, 새로운 무언가로 나서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끝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심지어 그들은 처음부터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변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사랑에 대한 선언이라기보다, 악마와 천사의 사랑이 애초에 말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들의 사랑은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는가?
아마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속삭인 말은 이렇다 “우리는 하나인가, 아니면 둘인가?” 그러나 누구도, 무엇도 대답할 수 없다.
사라졌기 때문에 손에 쥘 수 있었을까? 그가 떠났다. 어쩌면 떠났다고 했다.
연극은 그렇게 하나 하고 둘에서 시작한다. 글이 든 책 한 장을 찢어 비행기를 날렸다. 내입과 반대로 날아갔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을까? 부르고 있는데, 말은 이미 지쳐 바람에 쓸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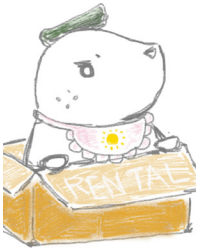


나는 먼과거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고 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떠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랬다면 나는 그를 이미 떠나보냈어야 했다. 그것을 확인할 시간도 충분했지만, 마치 그곳에 소속되지 못한 사람처럼 굴었다. 떠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를 떠나보낼 이유가 없다고 나는 매번 읊조렸다. 그렇게 말하고, 그 말은 나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가까워진 종말로 간다. 시간을 되돌려서, 장례를 미리 치를 것이다. 하지만 그를 애도하지 않는다. 그를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지도 않는다. 대신 장례를 반복하여 그와 가까워진다.

다시 나는 무대에 설 것이다. 그를 알지도 못하는 과거에 나는 서있다. 이제 나는 그의 죽음을 모른다. 흩뿌려진 기억만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그는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 된다. 나는 장례를 치르고도 그와 재회한다.





피그헤드랩은 올해 조금 쉬어갑니다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피그헤드랩은 올해 조금 쉬어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였더니 많은 위로와 응원을 듣게 된다. 술자리에서 좀 징징거린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5년이면 많은 고생했지, 그래도 아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하긴 힘들다는 이야기는 건물 계약 맺으면서부터 투덜거리던 것이다.
접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향성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뭐 여러 사정이야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뻔히 알법한 이야기들은 한 컨으로 재쳐두고.

일단 피그헤드랩은 올해 커뮤니티 위주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으로는 취향이 맞으면 같이 자전거나 아웃도어 활동 같은 것도 하고싶다. 아웃도어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동안 동호회 정도로 혼자 즐겨온 자전거 타기를 생각하고 있다. 근래 인스타그램에서 “바이크아트뮤직클럽”이라는 계정을 보게 되었다. 추측상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테마로 만든 모임이었는데 꽤 활성화 되어있고 즐거워 보이더라. 살짝 씬을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든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튼 피그헤드랩도 못할 게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이다.
일단 하고싶은 이야기는 바로 파티이다. 커뮤니티 = 파티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피그헤드랩에서 간간이 파티를 진행해온 것이 꽤 재미있었다.



2월에 진행한 봄맞이 바비큐 파티.

얼마 전에는 봄맞이 바비큐 파티를 하였는데 왁자지껄하니 즐거운 시간이었다. 피그헤드랩의 파티는 포트럭 파티(BYOB라고도 불리는)의 형식을 기본으로 띄고 있다.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와서 같이 어울려 나눠먹는 그러한 형식. 몇 번 참여해보니 꽤 재밌어서 피그헤드랩에서도 하였고 조금은 재미삼아 참여자들이 뭘 가져올지 랜덤 박스를 개봉하는 기분으로 진행하고는 한다. 나도 요리를 하고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나처럼 요리를 좋아하는 이들이 실력을 뽐내는 것도 꽤 의미 있다.

또 어디서 들었는데 외국에서 포트럭이라면 딱 자기가 먹을 것만 가져온다지만, 한국인의 정이라고 몇 인분씩 준비한 것이 모이면 상당히 푸짐한 잔칫상이 되기도 한다. 포트럭이라고, 또 가져오는 것이 랜덤이라고 했으니 결과가 영 아닐 때도 있다. 가령 디저트만 잔득인 때도 있었고 다양한 술로만 채워진 자리도 있었다. 그것도 재미라면 재미라고 할 수 있지.
물론 파티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다. 파티라고 하더라도 나름은 공간의 프로그램이다. 날을 택하고 공간을 청소하며 장식도 고민한다. 과거의 경우 게릴라 형식으로 전시를 열거나 내 과거 그림들을 걸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내가 모아온 맛집 컬렉션 수십장으로 벽을 꾸미기도 하였다. 정리하고 꾸미는 데만 며칠은 소요된다. SNS에 올릴 홍보물을 만드는 것도, 또 참여자 명단을 꾸리는 데도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사람을 가려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흥겹게 띄울 수 있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파티가 시작하여도 일의 연속이다. 손님도 계속 맞이해야 하고 주문한 음식을 대신 받거나 고기를 굽는 등 먹이는 일도 신경 써야 한다. 음료(술)가 떨어질 것 같으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도 머릿속에 넣어놔야 한다. 지난 봄맞이 삼겹살 파티의 경우 한참 고기를 굽고 손님들의 배를 채우고 나서야, 겨우 몇 점 입에 넣을 수 있었다.
분위기가 다운되는 일도 유의할 사항이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초면인 경우도 적지 않

고, 또 예술계의 인물들은 그 특성상 다소 고유한 소통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 어색해질 때도 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나 역시 독특한 소통을 하는 외골수임만 증명할 뿐이어서 요즘은 자중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는 이 사람이 오면 분위기를 띄울 수 있겠군' 하면서 미리 초대할 사람을 준비하기도 한다. 하여튼 파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는 꽤 고단한 일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몇 년간 적지 않은 자리들을 가져왔다. 피그헤드랩은 시작부터 파티를 염두하고 있었다. 간간이 언급을 하지만, 피그헤드랩에서의 전시는 반드시 오프닝 세레모니를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오프닝 세레모니에 대한 추억은 과거 다른 글에도 기고한 적이 있다. 여러 이유를 대기도 하고 대체로 타당할 것이지만, 근간에는 과거 전시 오프닝이라 하면 작가들이 서로 축하도 할 겸 술도 한잔 할 겸 복작복작하게 모였던 향수의 그리움도 크다. 잔칫집 분위기 같은 것이랄까. 감사하게도 피그헤드랩의 지난 5년간, 대체로 많은 분들이 그런 뜻에 동참해주었고 대체로 즐거운 자리들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수가 꽤 적지 않은 덕분인지, 요즘은 나름의 인지도 아닌 인지도 같은 것도 생기게 되었다. 이제는 피그헤드랩 규모 치고 적지 않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한번은 자리가 너무 초과되는 일도 발생하여, 선착순으로 끊었음에도 문의가 매우 많이 와 행복한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했던 이야기들의 반복일 수 있겠지만, '너는 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니?'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러한 즐거움 때문이다. 문득 쓰다 보니 내가 거쳐온 공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막 내가 피그헤드랩을 만들기 전 만난 DRP와 박찬국 작가님이 특히 머리에 떠오른다.
2017년 나는 보안여관의 두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그때의 두럭은 커뮤니티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고 그때의 두럭 활동도 어떤 다양성을 전제

로 한 소통에 맞춰져 있는 듯 하였다. 거기서 연계된 것이 DRP, 동대문 옥상낙원이었다. 짧게 소개하자면 DRP는 박찬국 작가님을 거의 대표로 하여 몇몇 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일종의 아지트였다.

동대문 신발상가 건물 옥상에 20년 정도 묵은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는 조건으로 공간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상가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된 지라(아마 우리나라 초창기 주상복합 건물 중 하나일 것이다) 쌓인 폐자제나 이사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한다. 부지도 부지대로 엄청 넓어서 치웠을 때 꽤나 고생했을 것 같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너비와 경관이기는 하였다. 정면으로 창신동, 뒷 편에는 동대문 상가들이 쫙 펼쳐졌다.

살짝 가파른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고 나면 일일이 손으로 만든 평상이나 타프 같은 시설, 그리고 허브 화분들이 있었다. 앞서 쓰레기들을 치우고 하나하나 만들고 채워놓은 것이다. 전기도 끌어오고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었다. 나도 피그헤드랩 전, project8x를 진행하였을 때 이곳을 빌려서 수십명의 사람들을 초청한 바 있다.

조금 아쉬웠던 지점들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예술'과 '창작'이라는 전제에 몰두했었던 내가, '문화'라는 영역으로 시선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대문에 많이 밀집된 인도네시아, 네팔 인들을 초대하여 로컬 음식을 해먹거나 꿀벌의 개체수 증가를 위한 도시양봉, 허브를 직접 키워 파스타를 해먹고 주기적인 포트럭 파티 등을 통해 계속하여 사람들과 접촉하고자 하였다. 이제는 꽤나 익숙해진 '커뮤니티 아트'라는 것을 나는 이곳에서 배운 것 같다. 당시 커뮤니티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한 것을 별로 보지 못했었다. '한때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너무 단기간으로 끝나는 그들만의 파티 같은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대체 뭐하는 거지?' 사실 사기꾼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아니 그래 사기라면 사기이고 장난이라면 장난 같은 것일

수도 있겠는 게, DRP에서의 만남은 예술이라는 영역이 고립된 엘리트 주의의 산물 같은 것이 아닌 놀이의 연속이었고 실제로 놀이라고 표현하였다. 주된 역할인 박찬국 작가님도 중견 혹은 원로작가(정확한 나이를 모른다)님 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무게감이나 부담감 없이 모든 이를 편하게 맞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존중을 받는 존재였다.
보안여관 역시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기라고 생각한다. 토종 쌀을 예술가들과 함께 연구하기도 하고 지역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콜렉티브 활동들이 꽤 있었다. 훗날 보안여관 자체도 일종의 맴버쉽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하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 같다.

아무튼 처음에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가, '나는 커뮤니티 아트라는 것을 할꺼야'라는 주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피그헤드랩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구상하였고 또 진행된 곳이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 지는 것은 쉽지 않다.
"피그헤드랩을 이번엔 조금 쉬어 가고자 한다, 방향성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고 주변에 얘기하였을 때도 받은 피드백은 대체로 안타까움이 기반하였다.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는 지금의 예술공간이라는 것이 여전히 어떤 형식을 갖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반복해야 그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유지 그 자체일 것이다. 각자 공간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크게 문화와 예술이라는 영역에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결국은 사라지는 것일 테다. 다 맞는 말이고 타당한 걱정이다.
쉬는 것, 힘을 빼는 것 자체가 공간의 활동으로 보여지고 싶다. 뭐 실제로 바쁘고 조금 지친 것도 사실이지만, DRP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즐겁게 관계를 맺고 그 시간들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은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말한 파티 같은 것은 접근성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테고 아웃도어든 어떤 동호회 같은 것이든 사람을 모으고자 하는 것

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혹자는 조언을 해주었다. 커뮤니티를 하실꺼면 제대로 된 커뮤니티를 하시라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그런 것은 커뮤니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모르겠다. 아무러면 또 어떤가. 친목회를 하면 어떻고 단체 미팅을 하면 어떻고 디너쇼를 하면 어떻고. 나는 그런 시도들 속에서 지금은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어떤 느낌의 목표를 지향하고자 한다. 여기서 둘 셋이라도 마음이 합쳐지고 무엇인가 하고싶은 것이 생긴다면, 그것을 세상에 시도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재단된 어떤 형태로, 가치를 평가받는 일이어야만 꼭 의미가 있을까. 물론 꼭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 상황과 형식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적어도 요즘의 내 관점에서는 이 일은 꼭 어떤 프레임을 맞춰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 같은 것들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하고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피그헤드랩을 운영하고자 한다. 일단 올 한해, 25년의 목표가 그렇다. 이것이 얼마나 유지될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깨우칠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다.

져태



한량윤씨
게으른 창작자

졑: 명사 '곁'의 방언

"네가 아들이었다면, 시골에 있는 고향집을 정리했을 텐데~.."

2024년 추석 명절 아빠의 아쉬움이 섞인 푸념을 들었다.

아들 선호의 집안 문화에 평생 자유로울 수 없던 나에게 아빠의 말은 가혹했다. 이제야 겨우 내 가정을 이룬 마흔의 나이에 또다시 '딸', 이라는 타이틀이 가슴을 꽉막히게했다.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다.
고마운 남편은 고민할 시간에 벌써 일을 하겠다며, 바로 일을 진행시켜 보자고 했고, 추석연휴를 하루 남긴 날, 아빠의 고향 집으로 갔다.

2021년 8월 내 생일을 이틀 앞둔 찌는 여름 날, 할머니는 소천하셨다.
백발이 된 머리에 앙증맞은 핀을 꼽고, 휠체어에 작은 몸을 의지해 앉아 kf94 마스크를 한 모습이 내가 본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이다.
나에게 할머니는 대체로 다정한 분이었지만 경상도 특유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뚝뚝함이 있었고, 어쩔땐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했다. 유연함이라는 단어





아빠의 고향집 가는 길, 고향집

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
그러나 마지막으로 살았던 요양원에서의 삶의 모습은 욕심 하나 없어 보이는 평온함 그 자체였다.

“여기선 다 해준데이, 걱정할꺼 한 개도 없다.”
“양반도 잘 있제,?”
(할머니는 내 남편에게 양반이라고 불렀다)
“네 할머니. 할머니 필요한거 없어요? 드시고 싶은건?”
“없다 ~ 다 있다”

빌어먹을 코로나.
기나긴 시간동안 나는 요양원 입구 유리문 건너 할머니를 만났다. 사실은 나보다, 우리 가족보다 아쉬운 쪽은 할머니셨겠지.
할머니는 사람들을 좋아했으니까.
요양원을 방문하는 아들 며느리나, 손주들과의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니, 사는 재미가 없었을거야.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노환이 오기 전까지, 거의 평생을 살던 곳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조금 떨어진 문경이지만 10대 때, 할아버지에게 시집와서 살았던 곳이니, 사실상 할머니의 고향은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가 맞다.
파평윤씨 집안의 4대 독자에게 맏며느리로 시집 온 할머니는 가마솥이 있는 부엌에서 6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모시며, 시동생들까지 줄줄이 데리고 모질게도 살았을 것이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이 집을 지키고 계셨다. 빗자루와 신발들

물론, 그 시절의 이야기가 다 그렇겠지만.

“할매 저태 와서 누워”
“저태? 저태??가 뭐야?”

어릴적 아빠를 따라, 시골집에 가면 아빠는 아빠대로 보이지 않고 엄마는 엄마대로 부엌에서 늘 바빠보였으므로 나는 동생이랑 마당 구석에 나뒹굴고 있는 호미며 곡괭이 같은 쇠로 땅이나 파고 놀았다. 한참을 놀다가 심심해서 마루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는 본인이 먼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할머니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셨다.

“할매 젙에 와~”

‘젙’ 이라는 단어를 굳이 ‘젖’으로 해석한 짓궂은 나는 그렇게 할머니의 진짜 젖으로 파고들곤 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 떠올려보면 할아버지는 고향 집에서 사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다.
나중에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할아버지는 사실 농사짓는 것보다, 고향을 떠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하시길 원하셨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전 인사를 하러 고향에 왔다가, 장남인데 전쟁이 나면 죽는다고 못가게 말리셔서 결국, 고향 땅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마음이 여리고 내성적인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꿈을 고향집의 논과 밭에 조용히 묻은 채 살아가셨을 거다.

할아버지는 안방에 계시는 시간보다 축사 바로 옆 2평 남짓한 토담 바깥채 공간에서 지내셨다. 우리는 그 공간을 '할아버지방' 이라고 불렀다.
마치 조금이라도 본채와 떨어지고 싶은 것 같이 그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었다.
농사일로 검붉게 그을린 얼굴과 손, 큰 키에 바짝 마른 몸에선 항상 장작불 탄 냄새와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동시에 났다.
내가 할아버지~ 하고 껴안으면 내 얼굴이 할아버지 배에 닿았는데, 그 냄새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계셨더라면, 할아버지~ 하고 껴안았을 때, 할아버지 가슴까지는 안길 수 있었겠지.

"빵빠레 사러가자~"

대은집에서 50미터쯤 걸어가면 작은 점방이 하나 있는데, 할아버지는 나와 동생의 손을 잡고 빵빠레 먹자, 하셨다.
할아버지가 뭔가 우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 시절 빵빠레는 점방에서 할아버지가 생각해낸 가장 근사하고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일 것이다.
가끔은 할아버지의 의도와 안 맞게 내가 먹고 싶었던 불량식품 같은 것을 집기도 했지만, 평소에도 이러쿵 저러쿵 말이 없는 할아버지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려면 빵빠레를 고를 수 밖에 없었다. 빵빠레를 손에 쥐면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만족스럽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암이라는 것을 알고 투병생활은 아들이 있는 서울에 와서 수개월 보내셨지만, 결국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의사들이 포기한) 그렇게도 떠나고 싶었던 고향집에 다시 돌아와 마약성분의 주사를 맞으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대은 고향집에서 시끌벅적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다. 경황이 없는 어른들은 아무도 나같은 아이에게 친절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고, 나는 그저 어색한 어른들의 곡소리를 듣고, 불안하고, 무서웠다.
생전 처음 느끼는 토할 것 같은 눈물을 꽉 쥐고 정신없이 뛰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엉엉 울었다.
한참을 토해낸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나를 보고 할머니는
"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냐~?"
원망하듯 꼬집어 물어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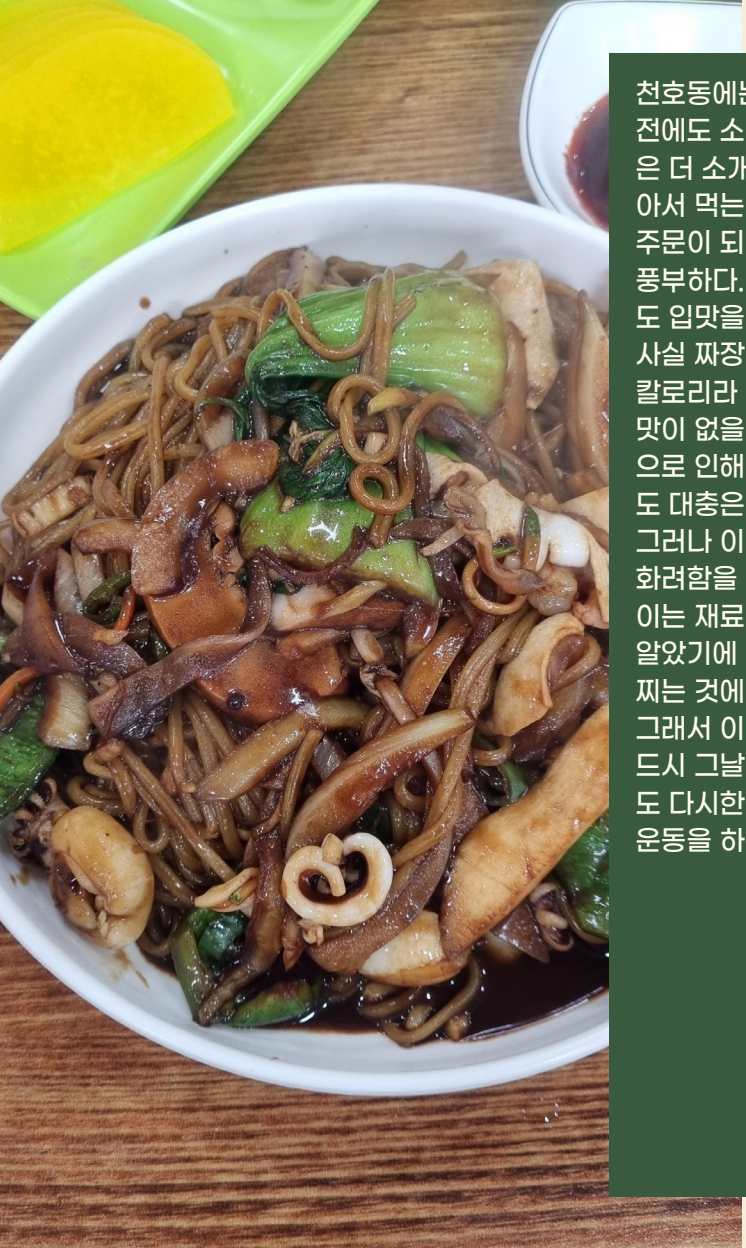
할머니가 무섭고, 또 억울한 마음도 잠시 생겼지만, 그 당시엔 처음 겪는 감정을 "슬퍼요 할머니."라고 똑 부러지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여름을 끝내는 비가 촉촉하게 서려 뽀얗게 흐린 날.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어 무작정 출발했지만, 앞으로 내가 그 곳에서 뭘 해야할지 사실 처음엔 아무것도 그려지지가 않았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싶었던 고향 땅, 집.
할머니가 시집와서 홀로 마지막까지 지켜온 그 집.
아들이니까, 장남이라서 끝까지 지켜내어야 할 그 집.

나는 그러한 그들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는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를 이 곳에서 마음껏 풀어낼 것이야. 보란 듯, 내가 지어볼테야. 언제 그렸는지도 모를 먼지쌓여 삭아버린 캔버스 위에 갈라진 덩어리, 붙어버린 응어리들. 나이프로 있는 힘껏 벅벅 긁어내고, 그 위에 나의 살과 피를 천천히 한 겹씩 쌓아볼테야.

그렇게 나는
그 곁으로, 그 젙으로
그 '져태' 가기로 했다.



천호동에는 내가 손에 꼽는 중국음식집이 있다.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나 싶은데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소개할 수 있는 집이다. 이 집에서 또 손 꼽아서 먹는 것이 바로 쟁반짜장이다. 1인분으로도 주문이 되는데 만원이 안되는 가격에 해물이 엄청 풍부하다. 웍질을 통해 배인 불향은 먹어도 먹어도 입맛을 돋군다.

사실 짜장은 죄책감이 드는 음식이다. 첫째는 고칼로리라 살찌는 걱정도 있고, 둘째는 여간해서는 맛이 없을 수가 없으며, 마지막으로는 짜장의 맛으로 인해 재료가 부실하거나 조리과정이 별로라도 대충은 그 맛이 그 맛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집은 확실한 짜장, 그것도 쟁반짜장의 화려함을 안심하고 음미할 수 있다. 하나하나 보이는 재료들, 확 트인 주방에서 웍질로 볶은 것을 알았기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정감. 남은 것은 살찌는 것에 대한 걱정 뿐.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쟁반짜장을 시키는 날은 반드시 그날 운동을 열심히 한 날이다. 글을 쓰면서도 다시한번 침이 고인다. 날이 풀린 만큼 빡세게 운동을 하고 가야겠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5. 3 / 32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X, 이채연, 한량윤씨